

그러나 우리 法輪大法(파룬따파) 이 문(門) 중에서는 이런 정황을 보기가 극히 드문데 100분의 1이나 될까, 대부분 다 이런 정황과 마주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연공(煉功)에 무슨 도움이 되지 않기에, 이런 형식을 취해 당신을 교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일반 공법의 수련 중에서는 이런 일이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며 또한 아주 오랜 시간을 지속한다. 어떤 사람은 바로 이것 때문에 공을 연마(煉)하지 못하며 겹을 먹는다. 밤에 연공할 때는 모두 아주 조용한 환경을 선택하는데, 척 보니 앞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이,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라, 놀라서 감히 연마하지 못한다. 우리 法輪大法(파룬따파) 중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없다. 그러나 극소수에게는 그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의 정황은 극히 특수하다.

또 한 가지는 바로 내외겸수(內外兼修) 공법을 연마(煉)하는 것으로서, 그는 무술도 연마(練)하고 또한 내수(內修)도 하는데, 이런 공법은 도가 중에서 비교적 많이 볼 수 있다. 사람이 일단 이 공법을 배우면 흔히 이런 마(魔)와 마주칠 수 있다. 일반 공법에서는 마주치지 않고 오로지 내외겸수 공법이나 무술을 연마(練)하는 공법에만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어떤 사람이 그를 찾아와 무예를 겨루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에는 수도(修道)하는 사람이 허다한데, 많은 사람이 무술을 연마하고, 내외겸수를 하기 때문이다. 무술을 연마하는 사람, 그 역시 공이 자랄 수 있다. 무엇 때문인가? 그가 기타 마음

서 인체에는 자체로 음양이 존재한다고 한다. 인체에 음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체는 비로소 각종 공능·원영(元嬰)·영해(嬰孩)·법신(法身) 등 생명체를 수련해 낼 수 있다. 음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고 많은 생명체를 수련해 낼 수 있다. 남자 몸이든 여자 몸이든 모두 마찬가지로, 단전(丹田)이라는 그 전(田)에서 모두 생성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이치가 있다. 도가에서는 흔히 상반신을 양으로 보고, 하반신을 음으로 보며; 신체 뒷면을 양으로 보고, 신체 앞면을 음으로 보는가 하면; 또한 사람 신체의 좌측을 양으로 보고, 우측을 음으로 본다. 우리 중국에는 남좌여우(男左女右)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역시 여기에서 온 것으로서 아주 이치가 있다. 사람 몸은 자체에 음양이 존재하므로 음양의 상호작용하에서 자신이 곧 음양 평형에 도달할 수 있는데, 역시 많고 많은 생명체를 생성해 낼 수 있다.

이는 곧 한 가지 문제를 설명하는데, 우리는 남녀쌍수의 수련 방법을 채용하지 않아도 마찬가지로 아주 높은 층차 중으로 수련할 수 있다. 만약 남녀쌍수 방법을 채용해 수련하면서 잘 장악하지 못하면 입마(入魔)할 것이며, 곧 사법(邪法)이 된다. 아주 높은 층차에서 밀종이 남녀쌍수를 채용하려면, 반드시 이 화상(和尚)·라마가 아주 높은 층차 중까지 수련되었어야 한다. 그때 그의 사부가 그를 데리고 이런 수련을 진행하는데, 그는心性(썬썬)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는 파악할 수 있으며 사(邪)한 것에 치우치지 않는다. 그러나心性(썬썬)이 아주 낮은 사람

은 절대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하면 곧바로 사법에 들어가는데, 보증코 이리하다. 心性(썬썬)이 제한되어 있고, 속인 경지 중의 욕망적인 마음이 제거되지 않았으며, 색(色)에 대한 마음이 제거되지 않았고, 心性(썬썬)의 척도가 거기에 있으므로, 보증코 쓰기만 하면 곧 사(邪)한 것이다. 그러므로 함부로 저층차에서 전한다면 그것은 곧 사법을 전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한다.

이 몇 년래 적지 않은 기공사도 남녀쌍수를 전하고 있다. 어디가 이상한가? 도가(道家)에도 남녀쌍수의 수련방법이 나타났으며 또한 현재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당대(唐代)부터 시작되었다. 도가에 어찌하여 남녀쌍수가 나타났는가? 도가의 태극(太極) 학설은, 신체는 소우주로서 자체로 음양이 있다고 한다. 진정한 정전대법(正傳大法)은 모두 멀고도 오랜 연대를 경과하여 유전해 내려온 것으로서, 마음대로 고치고 마음대로 어떤 것을 더해 넣는다면 모두 그 법문의 것을 난잡하게 만들 것이며, 그에게 수련하여 원만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없게 한다. 그러므로 그 공법에 남녀쌍수의 것이 없으면 절대 수련하지 말아야 하는데, 쓰면 편차가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 특히 우리法輪大法(파룬파파) 이 한 법문에는 남녀쌍수가 없으며 이것을 말하지도 않는다. 이 문제를 우리는 바로 이렇게 본다.

성명쌍수(性命雙修)

성명쌍수(性命雙修) 이 문제는 이미 여러분에게 명백히 논

공(煉功)하기만 하면 곧 이렇다. 우리 많은 사람이 깊게 생각해 보지 않는데,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다만 이상함을 느낄 뿐 아주 풀이 죽어서 공을 연마(煉)하지 못한다. 한 가지 ‘이상함’에 가로막혔는데, 이것은 바로 마(魔)가 당신을 교란하는 것이며, 그것이 사람을 시켜 당신을 교란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간단한 교란형식으로서, 당신이 연마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에 도달한다. 당신이 연공하면 당신이 도를 얻는데, 당신이 그렇게 많은 것을 빚지고도 당신은 갚지 않겠단 말인가? 그것은 가만있지 않으며, 그것은 당신을 연마하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한 층차 중의 반영으로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런 현상이 다시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 한 몫 빚을 치른 후에는 그것이 다시 와서 교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法輪大法(파룬파파) 수련은 수련함이 비교적 빠르고 층차의 돌파 역시 비교적 빠르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마의 교란형식이 있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우리는 연공(煉功)하여 천목을 열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천목이 열린 후에 집에서 연공하다가 일부 무서운 광경, 무서운 얼굴을 볼 수 있다. 어떤 것은 머리를 풀어헤쳤고 어떤 것은 목숨을 내걸고 당신과 싸우려 하며 심지어 각종 거동을 하는데 아주 무섭다. 어떤 때에 연공을 하기만 하면 창문 밖에 모두 이런 것들이 엮드려 있는 것이 보이는데, 아주 무섭다.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가? 이것은 모두 마의 교란형식이다.

실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진정으로 수련하자면 나의 범신의 보호가 없이는 당신은 전혀 수련 성취할 수 없으며, 당신이 문만 나서면 생명 문제에 연관될 것이다. 사람의 元神(웬선)은 불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전생의 사회활동 중에서 누구에게 빚을 졌을 수 있고, 누구를 괴롭혔을 수 있으며, 또는 무슨 좋지 못한 일을 했을 수 있는데, 그 채권자는 당신을 찾으려 할 것이다. 불교 중에서는 말한다: 사람이 산다는 것이 바로 업력운보(業力輪報)다. 당신이 그에게 빚을 졌으면 그는 당신을 찾아와서 빚을 받아갈 것이며, 더 많이 받아 가면 다음번에 그가 다시 당신에게 갚아준다. 아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다음번에 거꾸로 되는데, 바로 이렇게 돌아오고 돌아간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마(魔)가 당신을 연공(煉功)하지 못하게 교란하고 있음을 본다. 이것은 모두 인연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것이 아닌데, 아무런 연고가 없다면 또 그것이 이렇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가장 보편적인 연공초마 형식은, 바로 당신이 연공하지 않을 때는 주위환경이 그래도 비교적 조용하다. 공을 배웠기 때문에 늘 연마(煉)하기를 즐기지만 거기에서 가부좌만 하면 갑자기 바깥이 조용하지 않음을 느낀다. 자동차 경적소리도 울리고 복도에는 발자국 소리, 말하는 소리,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있으며, 밖에는 라디오도 틀어 놓아 곧 조용하지 않다. 당신이 연공하지 않으면 환경은 그래도 꽤 좋으나 당신이 연

술한 적이 있다. 성명쌍수란 바로 心性(썬썬)을 수련하는 동시에 또 명(命)을 닦는 것으로서, 다시 말하면 本體(번티)를 개변하는 것이다. 개변하는 과정 중에 사람의 세포가 점차적으로 고에너지물질로 대체될 때 노쇠를 늦출 수 있다. 신체는 젊은 사람 방향으로 되돌아감이 나타나며, 점차적으로 되돌아가고, 점차적으로 전화(轉化)하여 최후에 완전히 고에너지물질로 대체되었을 때면, 이 사람의 신체는 이미 다른 물질신체로 완전히 전화된 것이다. 그러한 신체는 곧바로 내가 말한, 오행을 벗어났고 오행 중에 있지 않으며, 그의 신체는 곧 불괴(不壞) 신체다.

절에서 하는 수련은 오로지 성(性)만 닦으므로 수법(手法)을 말하지 않고 명(命)을 닦는 것을 말하지 않으며 그것은 열반(涅槃)을 주장한다. 석가모니가 전한 방법은 바로 열반을 말하는 것인데, 사실 석가모니 자신은 고심대법(高深大法)이 있어서 本體(번티)를 완전히 고에너지물질로 전화해 가지고 갈 수 있었다. 그는 이런 수련법을 남겨두기 위해 그 자신이 열반했다. 그는 왜 이렇게 가르쳤는가? 그는 바로 사람들에게 최대한도로 집착심을 버리게 하기 위함인데, 무엇이든 다 버려 최후에는 신체마저 버림으로써, 모든 마음이 다 없어지게 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최대한도로 이 일보까지 해내게 하기 위해 바로 열반이라는 이 길을 걸었다. 그러므로 역대 화상(和尚)도 모두 열반이라는 이 길을 걸었다. 열반은 바로 화상이 죽어 육신을 버리고 그 자신의 元神(웬선)이 공을 갖고 올라가는 것이다.

도가는 중점을 명(命)을 닦는 데 둔다. 그는 도제(徒弟)를 선택하고, 중생을 널리 제도함을 말하지 않으며, 그는 아주 좋고 아주 좋은 사람을 상대하므로, 그는 술류(術類)의 것들을 말하고, 그는 어떻게 명을 닦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한다. 그러나 불가의 이런 특정한 수련방법에서는, 특히 불교 이 수련방법에서는 이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 모두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많은 고심(高深)한 불가대법 중에서는 역시 말하는데, 우리 이 법문에서도 말한다. 우리法輪大法(파룬파파) 이 한 문(門)은 本體(번티)도 가지고, 원영(元嬰)도 가지는데, 이 둘은 구별이 있다. 원영 역시 일종의 고에너지물질로 구성된 신체지만, 그는 우리 이 공간에 함부로 현현(顯現)할 수 없으며, 이 공간에서 장기적으로 속인과 같은 형상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本體(번티)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本體(번티)가 전화된 후, 비록 그의 세포가 고에너지물질로 대체되었지만, 그의 분자 배열순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사람의 신체와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여전히 구별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 신체는 다른 공간으로 진입할 수 있다.

성명쌍수(性命雙修) 공법은 외관상으로 사람들에게 아주 젊다는 느낌을 주며, 보기에 이 사람은 실제 연령과 차이가 아주 크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물었다: 스승님, 제 나이가 얼마로 보이십니까? 사실 그녀는 70세에 가까우나, 겉으로는 겨우 40여 세로 보였다. 주름살이 없고, 얼굴이 매끈하고도 희며, 희고도 불그레한데, 이 어디 70세에 가까운 사람 같은가.

이다. 아무리 길어도 3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1, 2년이면 곧 지나가는데 그 겪는 고생이야말로 상당히 크다. 지나고 나면 곧 깨어나는데, 그녀는 이것으로 이미 수련이 끝난 것으로 치기 때문에 즉시 개공하며 각종 신통(神通)이 모두 나올 수 있다. 이것은 극히 보기 드물며, 극히 보기 드문 것으로서, 역사상 이런 것이 있지만, 역시 일반적인 근기의 사람인 당신에게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미친 승려, 미친 도사가 있음을 알고 있을 텐데, 역사상 확실히 존재했으며 기재되어 있다. 무슨 풍승소진(瘋僧掃秦)이요, 미친 도사(瘋道士)요 하는 이런 전고(典故)가 아주 많다.

주화입마란 우리가 말하는데 확실히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어느 한 사람이 주화(走火)할 수 있다고 하며 정말로 이럴 수 있다면, 나는 이 사람은 그래도 대단하다고 말한다. 입을 벌리면 불을 토해 낼 수 있고 손을 내밀면 불을 뿜을 수 있다. 담뱃불을 붙일 때 손가락을 내밀자마자 불이 오는데, 그것은 공능이라고 나는 말한다!

연공초마(煉功招魔)

무엇이 연공초마(煉功招魔)인가? 바로 우리들이 연공(煉功)할 때 흔히 쉽게 일부 교란을 받는 것이다. 연공을 하는데 어찌하여 마를 불러올 수 있는가? 한 사람이 수련하려고 함은

그에게 더러운 것을 두려워하는 이 부분을 막아준다. 그에게 일부분을 막아준 후에는 이 사람의 정신에 곧 문제가 나타나서 정말로 정신이 나간 것 같다. 그러나 흔히 이런 사람은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며 사람을 욕하지 않고 사람을 때리지도 않으며 흔히 또 좋은 일을 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는 오히려 아주 잔혹하다. 그는 추위를 모르기 때문에 그는 겨울에 맨발로 눈 위를 뛰어다니고, 홑옷을 입었으며, 언 발은 크게 갈라져 피가 흘러나오고; 그는 더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는 대변도 감히 먹고, 그는 오줌도 감히 마신다. 과거에 내가 아는 한 사람은, 그 말뚝덩이가 얼어서 판판한데도 그는 아주 맛있게 갇아먹었는데, 그는 속인이 명백한 상태하에서는 겪어 내지 못할 고생을 겪을 수 있었다. 당신은 그가 이처럼 미쳤기 때문에 얼마나 큰 고생을 겪는가를 생각해 보라. 물론 그는 흔히 공능을 동반하는데, 일반적으로 할머니가 많다. 과거에 할머니는 전족을 했는데, 2미터가 넘는 담도 달려가서 훌쩍 뛰어넘었다. 가족들이 그녀가 미쳐서 늘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을 보고는 곧 집안에 가둬 둔다. 가족들이 나간 후에 그 자물쇠를 가리키기만 하면 곧 열려서, 나가버린다. 그러면 쇠사슬로 묶어버리자. 가족들이 나간 후에 흔들기만 하면 쇠사슬이 곧 풀려버린다. 단속하려 해도 그녀를 단속할 수 없다. 이리하여 그녀는 무척 많은 고생을 겪을 것이다. 그녀가 고생을 너무나 심하게 겪고 닥쳐오는 것도 너무나 맹렬하기 때문에, 그녀는 빛을 진 좋지 못한 것들을 아주 빨리 갇아버릴 것

우리 法輪大法(파룬파파)를 연마(煉)하는 사람은 이런 정황이 나타날 것이다. 한 마디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젊은 처녀들은 늘 미용하기를 좋아하며, 피부가 좀 희게 변하고 좀 좋아지고자 한다. 내가 말하는데, 당신이 진정하게 성명쌍수 공법을 연마(煉)하면 자연히 이 일보에 도달하게 되며, 보증코 당신은 미용할 필요가 없다. 이 방면의 예를 우리는 더 들지 않겠다. 과거에는 각 업종에 나이 많은 사람이 비교적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나를 젊은이로 여겼는데, 현재는 나아져서 각 업종에 젊은이들이 비교적 많다. 사실 나도 젊지 않으며, 좀 지나면 50세가 되는데, 현재 벌써 43세다.

법신(法身)

왜 불상에는 장(場)이 있을 수 있는가? 많은 사람이 해석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도 한다: 불상에 장이 있는 것은 화상(和尚)이 불상에 대고 경을 읽어서 생긴 것이다. 다시 말해서 화상이 마주하고 수련하여 생긴 장이라는 것이다. 화상이 수련하든 누가 수련하든, 이런 에너지는 확산되는 것이며 정해진 방향이 없는 것으로서, 마땅히 온 불당(佛堂)의 바닥·천장·벽에 모두 균등한 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왜 하필 불상의 장만이 그렇게 강한가? 특히 심산 속이나 혹은 어느 산굴 속, 혹은 암석에 조각된 불상에 흔히 모두 장이 존재한다. 왜 이 장이 나타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

하는데, 어떻게 해석해도 해석이 통하지 않는다. 사실 불상에 그 장이 있는 것은 불상에 한 각자(覺者)의 법신(法身)이 있기 때문이다. 그 각자의 법신이 거기에 있으므로 그것은 에너지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석가모니든 관음보살이든, 만약 역사상 확실히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가 수련할 때에 그 역시 연공인(煉功人)이 아니었겠는가? 사람은 出世間法(추쓰젠파) 이외의 상당히 높은 일정한 층차로 수련한 후에는 곧 법신(法身)이 생길 수 있다. 법신은 사람의 단전(丹田) 부위에서 생기는 것으로서, 법(法)과 공(功)으로 구성되었으며 다른 공간에서 체현해 나온 것이다. 법신은 그 본인의 대단히 큰 위력을 구비하고 있지만 법신의 의식, 법신의 사상은 오히려 주체(主體)의 통제를 받는다. 그러나 법신 자신 또한 완정(完整)하고, 독립적이며, 확실하게 실재하는 개체의 생명이므로 또한 자신이 독립적으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 법신이 하는 일과 사람의 主意識(주이스)가 하려고 하는 일은 마찬가지로, 똑같다. 그 일을 본인이 가서 해도 그렇게 하며 법신이 가서 해도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법신이다. 내가 무슨 일을 하려 하면, 예를 들어 진정하게 수련하는 제자에게 신체를 조정(調整)해 주는 것은 다 나의 법신이 한다. 법신은 속인의 그 신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공간에서 체현한다. 그 생명체는 또 고정불변인 것이 아니라, 그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때로 그는 아주 크게 변해 법신의 온 머리를 전

구도 알아보지 못한다. 속인 이 사회 환경 중에 오면, 사람들이 그를 교란하여 그가 명예를 중히 여기고 이익을 중히 여기며, 최후에는 떨어져 내려가서 영원히 솟아오를 날이 없게 한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감히 오지 못하며 누구나 다 두려워한다. 이런 사람이 왔는데 온 후에는 그가 속인 중에서 정말로 잘못되어, 정말로 곧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으며, 일생에 나쁜 일을 적지 않게 했다. 사람이 살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쟁탈할 때면 나쁜 일을 아주 많이 할 수 있으며 매우 많은 것을 빚질 수 있다. 그의 사부가 보니 이 사람은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또 과위(果位)가 있는지라, 그를 이렇게 함부로 떨어지게 할 수 없지 않은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 아주 조급하지만, 그를 수련하게 할 별다른 방법이 없다. 그때에 어디 가서 사부를 찾겠는가? 그는 새롭게 되돌아가야 하며 되돌아 수련해야 한다. 그러나 어찌 말처럼 쉽겠는가? 연령이 또한 많아 수련하려 해도 늦었는데, 어디에 가서 성명쌍수(性命雙修) 공법을 찾겠는가?

근기(根基)가 반드시 아주 좋은 사람이라야만 이런 극히 특수한 정황하에서 비로소 그에게 미치게 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즉 절대적으로 희망이 없으며 스스로 되돌아 올 수 없는 정황하에서 이런 방법을 취할 수 있는데, 바로 그를 미치게 하는 것으로서, 그의 머리 어느 한 부위를 막아준다. 예를 들면 우리 사람은 추위를 두려워하고, 더러운 것을 두려워하는데, 그에게 추위를 두려워하는 이 대뇌 부분을 막아주고,

아주 좋다고 느끼는데, 대뇌는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이런 기공태도 나타날 수 없다. 사람이 기공태가 나타난 후에는 아주 이지적이다. 하는 말도 아주 철리성(哲理性)이 있을 뿐만 아니라 논리성도 아주 좋다. 단지 그가 한 말을 속인은 믿지 않을 뿐이다. 그는 잠깐 있다가 당신에게 알려주기를, 그가 사망한 모모(某某)를 보았으며, 그 사람이 그에게 뭘 하라고 알려주었다고 한다. 속인인 그가 믿을 수 있겠는가? 나중에 그는 이런 것을 마땅히 자기 마음속에 두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양쪽의 관계를 바로잡은 다음에는 좋아진다. 흔히 이런 사람은 모두 공능을 동반하는데, 이 역시 주화입마가 아니다.

또 한 가지 정황이 있는데 ‘진풍(眞瘋)’이라 하며, 이런 정황은 보기가 극히 드물다. 우리가 말하는 ‘진풍’은 진짜로 미친 것이 아니고, 이 뜻이 아니며 진을 수련(修真)한다는 뜻이다. 어떻게 진풍하는가? 수련하는 사람 중, 10만 명 중에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을 수 있다고 나는 말하는데, 보기가 극히 드물다. 그러므로 그것은 보편성을 띠지 않으며 또한 사회에 영향을 조성하지 않는다.

‘진풍’은 흔히 선결 조건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의 근기가 아주 좋아야 하고 또한 연령이 아주 많아야 한다. 연령이 많으면 수련하려 해도 이미 늦었다. 근기가 아주 좋음은 흔히 사명을 갖고 온 것으로서 고층차에서 온 것이다. 속인 이 사회는 누가 오든지 누구나 두려워하며, 머리를 씻기만 하면 누

부 보아내지 못할 만큼 크며, 때로는 아주 작게 변할 수도 있어 세포보다도 더 작다.

개광(開光)

공장에서 만들어 낸 불상은 다만 예술품일 뿐이다. 개광(開光)이란 바로 부처의 법신을 청해 불상에 오르게 하는 것으로서, 그런 다음 불상을 속인 중의 유형적인 신체로 삼아 모신다. 연공인(煉功人)이 공경하고 우러러보는 이 한 마음을 가지면, 수련할 때 불상의 법신은 그를 위해 법을 수호해 주고, 그를 지켜주고, 그를 보호해 주는데, 이것이 개광의 진정한 목적이다. 오로지 정식으로 개광하는 의식에서 정념(正念)을 내보내야 하는데, 아주 높은 층차에 있는 대각자거나, 아주 높은 층차에서 수련하여 이런 역량을 갖춘 사람만이 비로소 이 일을 할 수 있다.

절에서는 불상은 개광해야 한다고 하며, 개광을 거치지 않은 불상은 영험하지 않다고 그는 말한다. 현재 절의 화상(和尚)들을 보면 진정한 그런 대법사(大法師)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다. ‘문화대혁명’ 이후, 그런 어린 화상들의 일부는 진수를 전해 받지 못하고도 현재는 주지가 되어 많은 것이 실전(失傳)되었다. 그에게 묻는다. 개광해서 뭘 하는가? 그는 말한다. 개광을 하면 불상이 영험하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험한가는 그도 분명하게 말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의 그것은 단지 의식을 거행하

는 것일 뿐이며, 불상 속에 작은 경문 하나를 넣어 놓은 다음 그것을 종이로 봉하고서 그것에다 대고 경을 읽고는 그는 곧 개광했다고 한다. 그러나 개광에 도달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건 그가 어떻게 경을 읽는가를 봐야 한다. 석가모니는 정념(正念)을 말했는데, 일심불란(一心不亂)으로 경을 읽어 진정하게 그가 수련하는 그 한 법문의 세계를 진동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각자(覺者)를 불러 올 수 있다. 그 각자의 법신이 하나 올라가야만 비로소 개광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

어떤 화상은 거기에서 경을 읽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생각한다: 좀 지나 개광이 끝나면 나에게 돈을 얼마나 줄 것인가. 또는 경을 읽으면서 생각한다: 모모(某某)가 나에게 것처럼 못되게 군다. 그의 거기서도 서로 혈뜬고 싸우는데, 현재 말법시기에 이런 현상을 인정하지 않아도 안 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여기에서 불교를 비평해서가 아니라, 말법시기의 어떤 사원(寺院)은 사실 청정(淸淨)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머릿속에서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좋지 않은 염두를 내보내는데, 그 각자가 올 수 있겠는가? 전혀 개광의 목적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일부 좋은 사원(寺院)과 도관(道觀)도 있다.

내가 모(某) 시(市)에서 본 한 화상(和尚)은 그 손이 시켜냈다. 경문을 불상 속에 밀어 넣고 대충 바르고서 입으로 두어 번 중얼거리고는 개광했다고 한다. 다시 불상을 하나 갖다 놓고 또 두어 번 중얼거리는데, 개광을 하나 하면 40위안이다.

간의 그 고급생명이 그를 한번 도와줄 수도 있다. 그는 이리하여 단번에 천목이 열리거나, 반개오(半開悟) 상태에 처한다. 천목은 아주 높은 층차까지 열리고, 단번에 우주 중의 일부 진실한 정황을 보게 되며, 아울러 공능도 있게 된다. 당신이 말해 보라. 이런 사람이 이런 정황을 보면 그의 대뇌가 견뎌낼 수 있겠는가? 당신이 생각해 보라. 그의 그 심태가 어떻게겠는가? 종래로 미신이며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여긴 일, 다른 사람이 제기만 해도 비웃던 일이 확실하고 확실하게 그의 눈앞에 나타나며 또한 실제적이고 실제적으로 접촉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의 대뇌는 곧 감당해 내지 못하고, 그의 정신적 압력은 너무나 커서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나 사유 논리는 혼란하지 않은데, 그는 다만 양쪽의 관계를 바로잡지 못하는 것이다. 그는, 인류가 한 일이 잘못되었으며, 흔히 저쪽이 옳은 것을 발견한다. 저쪽에 따라 하면 사람들은 곧 그가 틀렸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곧 이 사람이 연공(練功)하여 주화입마했다고 한다.

사실 그는 주화입마한 것이 아니며, 우리 대다수 사람들은 연공(煉功)해서는 전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없는데, 다만 그런 특별히 고집스러운 사람만이 이런 기공태(氣功態)가 나타날 수 있다. 우리 여기에 자리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천목이 열렸는데, 상당히 많다. 그는 확실하고 확실하게 다른 공간의 것을 보았지만, 그는 놀라거나 이상하게 느끼지 않고

을 그는 일률로 미신이라 말한다. 이런 사람이 몇 년 전에는 아주 많았는데, 현재는 비교적 적어졌다. 왜냐하면 일부 현상은 당신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도 그것이 이미 확실하고 확실하게 우리 이 공간 중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감히 그것을 정시(正視)하지 못하지만, 현재 사람들은 그것을 모두 감히 말하며 사람들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이므로, 역시 연공(煉功)에 관한 정황을 일부 알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정도로 고집스럽다: 당신이 기공을 말하기만 하면 그는 내심에서 당신을 비웃는데, 그는 당신이 미신을 믿는다고 매우 우습게 여긴다. 당신이 기공 중의 현상을 말하기만 하면 그는 곧 당신 이 사람이 매우 우매하다고 여긴다. 이런 사람은 비록 고집스럽지만 근기가 꼭 좋지 못한 것은 아니다. 만약 이 사람이 근기가 좋아 그가 연공(煉功)하면 천목이 아주 높은 층차까지 열릴 것이며, 또한 공능이 나올 것이다. 그는 기공을 믿지 않지만, 자신이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증할 수 없다. 그가 만약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보이는데, 양의(西醫)에게 보여서 낫지 않으면 중의(中醫)에게 가보고, 중의에게 보여도 낫지 않고 무슨 민간처방을 써도 낫지 않자, 그때서야 그는 기공이 떠올랐다. 그는 생각한다: 내가 가서 대운(大運)을 만날지, 기공이 도대체 나의 이 병을 고칠 수 있는지 보자. 그는 마지못해 온다. 그는 연공(煉功)하자마자 근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단번에 연마(煉)를 아주 편찮게 할 수 있다. 어느 사부의 마음에 들 수 있고, 다른 공

현재 화상은 이것도 상품으로 삼아 불상 개광으로 돈을 번다. 내가 보니 개광되지도 않았고 도무지 개광될 수 없지만 현재 화상은 이런 일까지도 한다. 나는 또 한 가지 어떤 일을 보았는가? 절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마치 거사(居士) 같았다. 불상에 개광을 한다면서 그는 거울을 하나 들어 태양을 마주하고 그 빛을 불상 몸에 비추고는 그는 곧 개광했다고 했다. 모두 이처럼 가소로운 정도까지 도달했다! 오늘날 불교는 이 일보까지 발전했으며 그것 역시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다.

남경(南京)에서 동(銅)으로 만든 대불상 하나를 홍콩의 대서산(大嶼山)에 세웠는데, 아주 큰 불상이었다. 불상의 개광을 위해 전 세계에서 많은 화상이 왔는데, 그중에 한 화상이 거울 하나를 들어 태양을 마주하고 빛을 불상의 얼굴에 비추고는 개광이라고 했다. 그렇게 성대한 모임, 그렇게 엄숙한 장소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건대 정말로 슬픈 일이다! 그런 까닭에 석가모니는 말했다: 말법시기에 이르면 화상은 자신마저 제도하기 어려운데, 남을 제도하기는 더욱 어렵다. 더구나 많은 화상은 자신의 각도에서 불경을 해석하는데, 무슨 서왕모경(王母娘娘經)이 절에 들어갔는가 하면, 불교 경전 중의 것이 아닌 것도 모두 절에 들어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아, 지금은 아주 난잡하다. 물론 진정하게 수련하는 화상은 아직도 있으며 아직도 아주 편찮다. 개광은 실제로 각자의 법신을 청해 불상에 오르게 하는 것인데, 이처럼 머무르면 바로 개광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불상이 개광되지 않았다면, 모시면 안 된다. 모시면 아주 엄청난 후과(後果)를 가져올 것이다. 어떤 엄청난 후과인가? 현재 우리 인체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발견한바, 우리 사람의 의념(意念), 사람의 대뇌 사유는 일종의 물질을 생성할 수 있다. 우리는 아주 높은 층차 중에서 그것이 확실히 일종의 물질임을 보았지만, 이 물질은 오히려 우리가 현재 연구하여 발견한 것처럼 뇌파 형식이 아니라, 완전(完整)한 대뇌 형식이다. 평소 속인이 문제를 생각할 때 내보내는 대뇌형태의 것은, 그것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내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곧 흩어져 버리나, 연공인(煉功人)의 에너지는 유지되는 시간이 더 길다. 이 불상이 공장에서 생산되어서부터 그것이 곧 사상이 있다는 말이 아니다. 없다. 어떤 것은 개광을 거치지 않았으며 그가 절에 가지고 와서도 개광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했다. 만약 어느 가짜 기공사, 사문왜도(邪門歪道)의 사람을 찾아서 개광한다면 그것은 더욱 위험한 것으로서, 여우·족제비가 곧 올라간다.

그러므로 만약 개광하지 않은 불상에 당신이 가서 절을 하면 너무나도 위험하다. 어느 정도로 위험한가? 내가 말했지만, 인류는 오늘날까지 발전하면서 모든 것이 다 폐괴(敗壞)되고 있으며, 온 사회, 온 우주 중의 모든 일 역시 잇달아 폐괴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속인 중의 모든 일이 모두 자신이 조성한 것이다. 정법을 구하고 바른 길을 걷고자 해도 무척 어려우며, 각 방면에서 다 교란한다. 부처에게 빌고자 하는데, 누가 부처인

그래서 많은 사람, 그는 기공의 진실한 정황을 요해(了解)하지 못하고, 그 역시 그 중의 이치를 모르면서, 함부로 허튼 소리를 한다. 일단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떤 모자든 모두 기공 여기에 씌운다. 기공이 사회에서 보급된 시간은 아주 짧은데, 많은 사람이 고집스러운 관념을 품고서 늘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비방하며, 그것을 배척한다. 그가 어떤 심리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이처럼 기공을 싫어하며, 마치 그와 무슨 관계라도 있는 듯이 기공을 제기하기만 하면 곧 유심(唯心)이라 한다. 기공은 과학이며 더욱 높은 과학이다. 다만 그러한 사람의 관념이 너무 고집스럽고 지식이 너무 편협하여 조성한 것일 뿐이다.

또 한 가지 정황이 있는데 수련계에 기공태(氣功態)라는 것이 있다. 이런 사람의 정신은 얼떨떨하지만 그 역시 주화입마가 아니며 그는 매우 이지적이다. 나는 우선 기공태란 어찌된 일인가를 말하겠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우리가 연공(煉功)함에 근기(根基) 문제를 중시한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종교를 믿는 사람이 다 있는데, 중국에도 수천 년 동안 줄곧 불교·도교를 믿는 사람이 있었으며, 선에는 좋은 결과가 있고(善有善報), 악에는 나쁜 결과가 있음(惡有惡報)을 믿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더욱이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비판을 받았으며 미신이라 했다. 일부 사람들은 그가 이해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 책에서 배우지 못한 것, 현대과학이 그 일보까지 발전하지 못했거나 혹은 인식하지 못한 사실

만 비로소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모두 이렇게 하지 못했고, 그는 여전히 속인이다. 그러므로 그는 때가 되면 여전히 병을 얻을 것이다. 어느 날 그가 갑자기 뇌혈전에 걸리거나, 갑자기 이런 병에 걸리고 저런 병에 걸리며, 혹은 어느 날 정신병에 걸린다. 그가 연공(練功)하고 있음을 누구나 다 아는지라, 일단 이 사람이 정신병에 걸리면 사람들은 곧 그가 연공하여 주화입마했다고 하면서 큰 모자를 씌운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문외한은 모르며, 우리 전문가들(內行人), 많은 연공인(煉功人)도 그 중의 진정한 이치를 알기가 매우 어렵다. 만약 이 사람이 집에서 정신병에 걸렸다면 그래도 말하기가 좀 괜찮은데, 남들은 그래도 그가 연공하여 그렇게 되었다고 할 것이며; 만약 그가 연공장(練功場)에서 정신병에 걸렸다면 큰일로서, 이 큰 모자가 씌워져 벗으려 해도 벗을 수 없다. 연공하여 주화입마했다고 신문에 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눈을 딱 감고 기공을 반대한다: 거봐라. 조금 전까지도 거기서 아주 잘 연마(練)했는데 지금은 이 꼴이 되었다. 한 속인으로서 그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할 어떤 일이 있다면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는 또 다른 병이 나타날 수도 있고 다른 번거로움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모두 연공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합리적인가? 마치 우리 병원의 의사처럼, 그가 의사가 되었다면 그는 이 한평생 영원히 병에 걸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같은데,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겠는가?

가? 빌려고 해도 매우 어렵다.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말하겠다: 첫 번째 사람이 만약 개광하지 않은 불상 앞에 가서 절을 하면 곧 잘못된다. 현재 부처에게 절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정과(正果)를 얻겠다는 생각을 갖고서 부처에게 비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이런 사람은 너무나도 적다. 대다수 사람들이 부처에게 절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재난을 없애고, 난(難)을 해결하며, 돈을 버는 이런 것을 구한다. 이것이 불교 정전의 것인가? 전혀 이 층의 것이 없다.

부처에게 절하는 사람이 만약 돈을 구하는 것이라면, 불상에 대고 절을 하거나, 관음보살상이나 여래불상에 대고 말한다: 제가 돈을 좀 벌게 도와주십시오. 허 참, 완전(完整)한 의념(意念)이 형성되어 나온다. 그가 불상에 대고 내보냈으므로 단번에 이 불상에 올라간다. 다른 공간에서 이 몸체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데, 이 몸에 오르면 이 불상은 곧 대뇌가 있게 되며, 사상이 있게 되지만, 오히려 신체는 없다. 다른 사람도 가서 절을 하는데, 절을 하고 절을 하여 그것에게 일정한 에너지를 줄 것이다. 특히 연공(煉功)하는 사람은 더욱 위험한데, 절을 하기만 하면 점차적으로 그것에게 에너지를 주어 그것은 곧 유형(有形)적인 신체를 형성한다. 그러나 이 유형적인 신체는 다른 공간에서 형성된다. 형성된 후, 그것은 다른 공간 속에 있으며 그것은 우주 중의 조그마한 이치를 알 수 있으므로 그것은 사람을 위해 일을 좀 할 수 있다. 이리하여 그것도 조그마한 공이 자랄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람을 돕는 데에는 조

건이 있고 대가가 있다. 다른 공간에서 그것은 행동이 자유로
우며, 속인을 자유자재로 통제한다. 이 유형적인 신체는 불상의
형상과 똑같은데, 빌어서 나온 것은 가짜 관음보살, 가짜 여래
부처로서, 사람이 빌어서 온 것이며 생김새가 불상과 같고 부
처의 형상이다. 그러나 가짜 부처, 가짜 보살의 사상은 극히 나
쁜 것으로서, 돈을 구한다. 그것은 다른 공간에서 생겼으며, 그
것은 사상이 있게 되었다. 그것은 조그마한 이치를 알고 있어
그것이 감히 크게 나쁜 일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조그마
한 나쁜 일은 감히 한다. 때로는 또 사람을 돕는데, 만약 사람
을 돕지 않는다면 완전히 사(邪)한 것이라 곧 그것을 죽여야
한다. 어떻게 돕는가? 그 사람이 말한다: 부처님께 빌고 비나니
저를 꼭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집 누가 앓고 있습니다. 좋다.
당신을 도와주겠다. 그것이 당신에게 시주함 안에 돈을 넣게
하는데, 그것의 사상은 돈을 얻으려는 것이다. 그 시주함에 돈
을 많이 넣으면 당신의 병이 빨리 낫게 한다. 그것은 일정한 에
너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공간에서 그것은 한 속인을 조종할
수 있다. 특히 공(功)이 있는 사람이 가서 절을 하면 더욱 위
험하다. 연공인(煉功人)이 무엇을 구한단 말인가? 돈을 구한
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라. 연공(煉功)하는 사람이 무슨 재물
을 구하겠는가? 육친(親人)에게 재난을 없애고 병을 없애달라
고 비는 것도 모두 육친정(親情)에 대한 집착이다. 다른 사람
의 운명을 좌우하려 하는데, 사람은 제각기 운명이 있다! 당신
이 그것에게 절을 하면서 중얼거린다: 돈을 좀 벌게 저를 도와

실 사람도 알고 동네에서도 알고 이웃 간에도 그가 연공하는
것을 다 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라. 진정한 수련을,
요 몇 년 전까지는 누가 이런 일을 했는가? 한 사람이 없다.
진정으로 수련해야만 비로소 그의 인생행로를 개변할 수 있
다. 그러나 그는 한 속인으로서 다만 연공하여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할 뿐인데, 누가 그의 인생행로를 개변해 주겠
는가? 속인이라, 어느 날에 가서는 병을 얻고, 어느 날에 가서
는 무슨 번거로운 일과 마주치며, 어느 날에 가서는 정신병을
얻거나 또는 갑자기 죽을지도 모를 것인즉, 속인의 일생은 바
로 이러하다. 당신은 그가 공원에서 연공하는 것을 보라. 사실
그가 진정하게 수련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고층차로 수련하
려고 생각하지만 또 정법(正法)을 얻지 못해, 그 역시 수련해
올라가지 못한다. 그는 다만 고층차로 수련하려는 소원이 있
을 뿐, 그는 여전히 저층차 중에서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
하게 하는 연공자(練功者)이다. 그의 인생행로를 그에게 개
변해 줄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그는 곧 병을 얻게 마련이다.
德(덕)을 중히 여기지 않으면 병도 나올 수 없으며, 공을 연
마(練)한다고 해서 무슨 병에나 다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
니다.

그는 진정하게 수련해야 하며 心性(썬썬)을 중시하고 진정
하게 수련해야만 병을 제거할 수 있다. 연공(煉功)은 체조가
아니며 속인의 것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더욱 높은 이치와
표준으로 연공자(練功者)에게 요구해야 하며, 반드시 해내야

신이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이 정신병자의 主元神(주웬선)은 바로 이러하다. 그는 이 신체를 상관하려 하지 않고 그 자신은 늘 얼떨떨하며 늘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그런 때면 副意識(푸이스), 외래 정보가 곧 그를 교란한다. 각개 공간 층차가 그렇게 많은데 각종 정보가 모두 그를 교란한다. 더군다나 사람의 主元神(주웬선)이 전생에 일부 좋지 못한 일을 했을 수 있고 또한 채권자가 그를 해치려고 할 것 인즉, 각종 일이 모두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말하는데, 정신병은 바로 이렇게 된 일이다. 나에게 당신을 어떻게 치료하라는 것인가? 내가 말하는데, 진정한 정신병은 바로 이렇게 얻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를 교육하여 그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한다. 그러나 하기가 무척 어렵다. 당신이 보라. 정신병원의 그 의사가 손에 전기봉을 들고 흔들기만 하면 그는 즉시 겁이 나서 한마디 허튼소리도 하지 않는다. 무엇 때문인가? 그때 그의 主元神(주웬선)이 정신을 차린 것이며, 그는 자기를 감전시킬까 봐 겁이 난 것이다.

흔히 사람은 수련의 문에 들어서면 연마(煉)하기를 좋아하는데, 불성은 사람마다 있으며 수도(修道)하려는 마음은 사람마다 모두 있다. 그러므로 일단 공을 배우면 많은 사람이 한평생 연마와 함께하게 마련이다. 그가 수련해 올라갈 수 있는가 없는가, 법을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계없이, 어쨌든 그는 도를 구하려는 마음이 있어 그는 늘 연마(煉)하려 한다. 이 사람이 연공(練功)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아는데, 사무

주십시오. 좋다. 그것이 당신을 돕는데, 그것은 당신이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빌기를 간절히 바란다. 많이 빌수록 그것이 당신의 것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데, 등가교환이다. 다른 사람이 그것에게 준 돈이 시주함에 가득하기에 그것이 당신에게 얻게 한다. 어떻게 얻는가? 문을 나서면 돈지갑을 줍거나, 직장에서 상여금을 줌 주거나, 어쨌든 온갖 방법을 다해 당신으로 하여금 돈을 얻게 한다. 그것도 무조건 당신을 도울 수는 없지 않은가? 잃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그것은 공이 모자라므로 당신의 공을 조금 가져가거나 또는 당신이 연마(煉)해 낸 단(丹) 등을 가져가는데, 그것은 이것을 요구한다.

이런 가짜 부처가 때로는 대단히 위험하다. 우리 천목이 열린 많은 사람이 자신은 부처를 보았다고 여긴다. 어떤 사람은 오늘 절에 한 패의 부처들이 왔으며 이 부처의 이름은 무엇인데, 한 패를 거느리고 왔다고 한다. 어제 온 그 한 패는 어떤 모양이고 오늘 온 한 패는 어떤 모양이며, 얼마 후에 또 가고 또 한 패가 왔다고 한다. 무엇인가? 바로 이 부류에 속하는 것이다. 그것은 진짜 부처가 아니며 그것은 가짜로서, 이 부류가 상당히 많다.

만약 절에 이런 정황이 나타나면 더욱 위험하다. 화상(和尚)이 그것을 모시면 그것이 곧 화상을 단속한다. 당신이 나를 모시지 않는가? 당신은 명명백백하게 나를 모시고 있구나! 좋다. 당신은 수련하려고 하지 않는가? 내가 당신을 책임지며,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수련하게 해 주겠다. 그것이 당신을 안내하는

데, 그러면 당신이 수련 성취했다 해도 수련되어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이 안배해 수련한 것은 위의 어느 법문도 받아주지 않는다. 그것이 안배한 것이므로 당신은 장래에 그것의 관할에 속하게 된다. 당신 이것은 헛된 수련이 아닌가? 지금은 인류가 수련하여 정과(正果)를 얻으려 해도 아주 어렵다고 나는 말한다. 이런 현상은 상당히 보편적이다. 우리 많은 사람이 명산대천(名山大川)에서 본 불광(佛光)은 대다수가 모두 이 부류로서, 그것은 에너지가 있어 현현(顯現)할 수 있다. 진정한 대각자는 함부로 현현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지상불(地上佛)·지상도(地上道)라는 것이 비교적 적었지만, 현재는 특별히 많다. 그것이 나쁜 짓을 할 때면 위에서 그것을 죽이려 하는데, 죽이려 하면 그것은 불상으로 도망쳐 올라간다. 속인의 이 이치를 일반적으로 대각자는 쉽게 건드리지 않고, 더욱 높은 각자일수록 속인의 이치를 더욱 파괴하지 않으며 조금도 건드리지 않는다. 아무튼 갑자기 한 차례 벼락으로 불상을 쳐부술 수는 없으며 그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이 불상으로 도망치면 상관하지 않는다. 그것을 죽이려 하면 그것이 알고 도망친다. 그러므로 당신이 본 관음보살은 관음보살인가? 당신이 본 부처는 부처인가? 말하기가 아주 어렵다.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문제를 연상한다: 우리 집의 불상을 어떻게 할까? 많은 사람이 나를 생각할 것이다. 수련생들의 수련을 도와주기 위해 내가 알려주는데, 당신은 이렇게 하면 된다:

이라고 두려워하는 것도 집착심이며, 마찬가지로 당신에게 번거로움을 가져다줄 것이다. 수련 중에서 소업(消業)해야 하는데, 소업은 곧 고통이다. 어디 편안하고 편안하게 공이 자라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집착심을 어떻게 버리겠는가? 내가 여러분에게 불교 중의 옛이야기를 하나 하겠다. 과거에 한 사람이 무척 애써 수련하여 나한(羅漢)이 되었다. 그 사람이 정과를 얻고 나한으로 수련 성취하는데, 그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가? 삼계(三界)를 벗어났다! 이 기뻐함이 바로 집착심이고 환희심이다. 나한은 마땅히 무위(無爲)이며,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데, 그는 떨어졌으며 수련이 헛되었다. 수련이 헛되었으면 또다시 수련해야 하지 않는가. 또 새롭게 위로 수련하며 무척 애를 써서 다시 수련해 올라왔다. 이번에 그는 두려워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나는 기뻐하지 말자, 다시 기뻐했다가는 또 떨어질 테니. 그가 두려워하자 또 떨어졌다. 두려움 역시 집착심이다.

또 한 가지 정황이 있는데 바로 어떤 사람이 정신병에 걸리면 그가 곧 주화입마했다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아직도 내가 그에게 정신병을 고쳐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정신병은 병이 아니라고 하며, 나는 또한 이런 일을 상관할 시간이 없다. 무엇 때문인가? 정신병자 그는 병독(病毒)이 없고 신체 내에 병리변화가 없으며 궤양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병이 아니다. 정신병은 바로 사람의 主意識(주이스)가 너무 약한 것이다. 어느 정도로 약한가? 마치 그 사람이 늘 자

차에서 문제를 보아야 하며 속인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아서 안 된다. 당신이 병이 있다고 여길 때면 아마 병을 불러올지도 모른다. 당신이 그것을 병으로 여기기만 하면 당신의 心性(썸썸)은 속인과 같은 높이로 되기 때문이다. 연공(煉功)과 진정한 수련, 특히 이런 상태에서는 그것이 병을 불러올 수 없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진정으로 병을 얻는 것은 정신이 7할이고 병이 3할이다. 흔히 사람의 정신이 먼저 무너져서, 먼저 안 되고, 부담이 아주 중하여 병세를 급격히 변화하게 하는데, 흔히 모두 이리하다. 예를 들면 과거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침대에 묶어 놓고 그의 팔을 잡고는 그의 피를 뽑겠다고 했다. 그런 다음 그의 눈을 가리고 그의 손목을 한 번 굽고(전혀 그의 피를 뽑지 않았음), 수도꼭지를 열어 그에게 똑똑똑 소리가 나는 것을 듣게 했다. 그는 자기의 피가 아래로 떨어지는 줄로 알고 잠시 후 이 사람은 죽어버렸다. 사실 그의 피를 전혀 뽑지 않았으며 흘린 것은 수돗물로서, 그의 정신이 그를 사망하게 한 것이다. 당신이 늘 병이 있다고 여길 때면 당신 자신이 병을 불러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당신의 心性(썸썸)이 이미 속인 그 기초로 떨어졌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속인은 당연히 병을 얻게 마련이다.

연공인인 당신이 늘 그것을 병이라고 여긴다면 실제로 당신은 구한 것이다. 당신이 구하여 병을 얻었다면 그 병은 눌러 들어갈 수 있다. 한 연공인으로서 心性(썸썸)은 마땅히 높아야 한다. 당신은 늘 병이라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병

당신은 나의 책(책에 나의 사진이 있기 때문에) 또는 나의 사진을 가지고 당신의 손에 불상을 받쳐 들고서 대연화수인(大蓮花手印)을 한 다음 마치 나에게 도움을 청하듯이, 스승님, 개광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다. 30초면 곧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우리 수련하는 사람으로만 국한하며 친척과 친구에게 개광해 주어서는 소용이 없다. 우리는 수련하는 사람만 책임진다. 어떤 사람은, 스승의 사진을 친척과 친구 집에 갖다 놓고 액막이(避邪)를 한다고 하는데, 나는 속인에게 액막이를 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스승에 대한 최대의 불경(不敬)이다.

지상불(地上佛)·지상도(地上道) 문제를 말한다. 또 한 가지 정황이 있는데, 중국 고대에는 많은 사람이 심산 밀림 속에서 수련했다. 왜 현재는 없어졌는가? 사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속인이 알지 못하게 한 것으로서, 조금도 적어지지 않았으며 이런 사람들은 모두 공능이 있다. 이 몇 년래 이런 사람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며 이런 사람들은 다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아직도 몇천 명이나 있으며 우리나라에 비교적 많다. 특히 그런 명산대천(名山大川)에는 다 있으며 일부 고산(高山) 중에도 있다. 그가 공능으로 동굴을 다 막아 버렸기 때문에 당신은 그의 존재를 보지 못한다. 그의 수련은 비교적 느리고 그의 방법은 비교적 우둔하며 그는 수련의 중심을 잡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직지인심(直指人心)으로서, 우리 우주의 최고 특성에 따라 수련하고, 우주의 그런 형식에 따라 수련하므로, 당연히 공이 아주 빨

리 자란다. 왜냐하면 수련의 법문은 피라미드 모양으로서, 오직 한가운데만이 대도(大道)이기 때문이다. 그런 주변 소도(小道)에서 수련하면 心性(썬쌩)이 높지 않을 수 있다. 높지 않게 수련하여 개공할 수도 있지만 진정하게 수련하는 그 대도(大道)와는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

그 역시 이어받고 전하며 도제(徒弟)를 이끌고 있는데, 그의 이 한 문(門)은 곧 이만큼 높이 수련하며 그의 心性(썬쌩) 역시 이만큼 높다. 그러므로 그가 전하는 도제도 모두 이만한 높이로 수련된다. 주변의 세간소도(世間小道)일수록 설이 더욱 많은데, 수련 방법(修持方法) 또한 복잡하여 중심을 잡지 못하고 수련한다. 사람의 수련은 주로 心性(썬쌩)을 닦는 것인데, 그는 여전히 이 점을 모르며 그는 고생만 겪으면 수련할 수 있다고 여긴다. 그러므로 그는 기나긴 시간을 경과하여, 몇백 년, 천여 년을 수련해서 그는 이런 조그마한 공이 자란다. 실제로 그가 고생을 겪어서 수련해 낸 것이 아니다. 어떻게 수련해 낸 것인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젊었을 때는 집착심이 아주 많았으며, 늙어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앞날에 희망이 없어지자 이 마음이 자연히 버려졌고 닦아 없어진 것인데, 이런 소도(小道)는 역시 이 방법이다. 그가 가부좌와 정력(定力), 고통을 겪음에 의거해 위로 수련할 때 그는 역시 공이 자랄 수 있음을 발견한다. 그러나 그는 도리어 그의 그 속인의 집착심이 길고도 간고한 세월 중에서 서서히 닦아 없어지고, 서서히 그 마음을 제거해서 자라 올라온 공(功)임을 모른다.

으로서 그것은 집착심이 아닌가? 당신의 집착심이 나오면 당신의 집착심을 제거해야 하지 않는가? 두려워할수록 더욱 병과 같이 되는데, 당신의 이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며, 당신에게 이번 교훈을 받아들이게 하여, 공포심을 버리고 제고해 올라오게 한다.

연공인(煉功人)은 장래 수련에서 역시 편안하지 않으며, 신체에 많은 공이 나타나는데, 모두 아주 강렬한 것들이 당신의 신체 내에서 오가며 움직여서 당신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저렇게 불편하게 한다. 당신이 불편한 원인은 주로 당신이 늘 자신의 신체가 무슨 병을 얻을까 봐 두려워하는 데 있다. 사실 신체 내에서 모두 것처럼 강렬한 것들이 나왔으며, 나온 것은 다 공이고 다 공능이며 또한 많은 생명체다. 움직이면 당신은 신체가 가렵고, 아프며, 견디기 어려운 등등을 느낄 수 있는데, 말초신경 감각도 매우 예민해 각종 상태가 다 나타날 것이다. 단지 당신의 신체가 고에너지물질로 전변(轉變)되기 전이라면 모두 이런 감각이 있는데, 본래 좋은 일이다. 한 수련인으로서 당신이 늘 자신을 속인으로 여기고, 늘 병이 있다고 여긴다면 어떻게 연마(煉)하겠는가? 우리가 연공(煉功)중에 겁난(劫難)이 왔을 때, 당신이 아직도 자신을 속인으로 여긴다면, 내가 말하는데 당신의 心性(썬쌩)은 그때 곧바로 속인 거기로 떨어진 것이다. 바로 이 한 문제에서 당신은 최소한 속인 그 층차로 떨어진 것이다.

우리는 진정한 연공인(煉功人)으로서 마땅히 아주 높은 층

부 사람들이 기공의 진실한 정황을 요해(了解)하지 못하면서 허황하고 허황하게 마구 의견을 발표하여 결과적으로 아주 혼란한 현상을 조성했다. 사람들은 곧 기가 정수리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못하면 바로 주화입마하거나 편차 등등이 생긴다고 여기는데, 결국 많은 사람이 제풀에 무서워한다.

기가 정수리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것은 다만 한 시기의 상태로서,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반년이 되어도 내려오지 못한다. 내려오지 못하면 진정한 기공사를 찾아 인도(引導)만 해도 내려오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릇 연공(煉功)할 때에 관을 돌파하지 못하거나, 기가 내려오지 못할 때 우리들은 心性(썌썌)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어느 층차 중에서 지체한 시간이 너무 오래되지 않았는지, 마땅히 心性(썌썌)을 제고(提高)하고 제고해야 한다! 당신이 진정하게 心性(썌썌)을 제고했을 때면 당신은 그것이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신은 오로지 당신 자신(自身)의 공의 변화만 강조하고 당신의 心性(썌썌)의 전변(轉變)을 강조하지 않는 데, 그것은 오히려 당신의 心性(썌썌) 제고를 기다려서야 비로소 정체(整體)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사람이 정말로 기가 통하지 않는 것은 무슨 문제를 조성하지 않는다. 흔히 다 우리 자신들의 정신작용이고, 또 기가 정수리에 올라가면 무슨 편차(偏差)가 나타난다는 가짜 기공사들의 말을 듣고 그는 두려워한다. 그가 이렇게 두려워하면 진정으로 번거로움을 가져올지도 모른다. 당신이 두려워하기만 하면 곧 공포심

우리는 겨냥성이 있기에, 진정하게 그 마음을 집어내어 그 마음을 제거하는데, 그러면 수련이 매우 빠르다. 나는 일부 지방에 간 적이 있는데, 수련을 꽤 오래 한, 이런 사람들과 자주 마주쳤다. 그 역시 말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당신의 이 일을 우리는 상관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지 않겠습니다. 이는 비교적 좋은 데 속한다.

좋지 않은 것도 있는데 좋지 않은 것을 우리는 역시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면 내가 처음 귀주(貴州)에 가서 공을 전할 때에 한창 학습반을 열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그의 사야(師爺)가 나를 만나려 하며 그의 사야는 모모(某某)인데 아주 오래오래 수련했다고 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음기(陰氣)를 가지고 있었고, 아주 좋지 않았으며 얼굴은 누랬다. 나는 그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시간이 없다고 거절해 버렸다. 결국 그 영감은 좋지 않게 생각해 나에게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으며 날마다 나에게 소란을 피워댔다. 나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투기를 원치 않고, 내가 그와 다투어야 할 필요도 없다. 그가 좋지 않은 것을 보내면 나는 곧 청리(清理)해 버렸고 청리가 끝나면 나는 바로 나의 법을 전했다.

과거 명나라에 수도(修道)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수도할 적에 뱀 부체가 있었다. 후에 이 수도하던 사람이 수련 성취하지 못하고 죽어버리자, 이 뱀은 수도인(修道人)의 신체를 점유하고서 사람의 형상을 수련해 났다. 그 사람의 사야가 바로 그 뱀이 수련해 낸 사람의 형상이다. 그는 본성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큰 뱀으로 변해 나에게 소란을 피워댔다. 내가 보니 너무나도 말이 아니었으므로 나는 그것을 손에 잡고 매우 강대한 일종의 공, 화공(化功)이라는 것으로 그것의 하반신을 녹여 물이 되게 하자, 그것의 상반신은 도망쳐 버렸다.

하루는, 그의 손제자가 우리 귀주(貴州) 보도소 소장을 찾아가서, 그의 사야가 그녀를 만나려 한다고 했다. 소장이 가서 동굴에 들어가 보니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다만 한 그림자만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고, 눈은 녹색 빛을 뿜어 눈을 뜨면 동굴이 밝아졌다가 눈을 감으면 동굴 안이 곧 캄캄해졌다. 그는 토박이말로 말했다: 리홍쯔(李洪志)가 또 오는데, 이번에는 우리 누구도 가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잘못했다. 리홍쯔(李洪志)는 사람을 제도하러 온 것이다. 손제자가 그에게 물었다: 사야님, 좀 일어나 보세요. 다리가 어찌된 영문입니까? 그러자 그가 말했다: 나는 일어나지 못한다. 내 다리가 상했다. 그에게 어떻게 상했는지 묻자 그는 곧 자기가 소란을 피워댄 과정을 말하기 시작했다. 북경(北京) 93년 동방건강박람회에서 그는 또 나에게 소란을 피웠다. 그가 늘 나쁜 일을 하고 그는 내가 대법(大法)을 전하는 것을 파괴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철저히 없애버렸다. 없애버린 후, 그의 사제(師姐)·사매(師妹)·사형(師兄)·사제(師弟)들이 모두 해보려고 했다. 당시 내가 몇 마디 말을 하자, 그들은 모두 깜짝 놀라 무서워하며 누구도 감히 덤비지 못했고 또한 어찌된 일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들 중 일부는

리명덩하여 副意識(푸이스)나 외래정보에게 신체를 주재(主宰)당해 일부 특수한 거동을 한다. 그에게 건물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 그는 곧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그에게 물에 뛰어들라고 하면 그는 곧 물에 뛰어든다. 그 자신마저도 살 생각을 하지 않고 신체를 모두 남에게 맡긴다. 이것은 주화입마에 속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연공(練功)하여 기로(歧途)에 잘못 빠져 들어간 것에 속하는데, 시작은 의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형성된 것이다. 많은 사람이 흔들흔들하는 것이 곧 연공(煉功)하는 것이라고 여기는데, 사실 이런 상태에서 정말로 연공한다면 엄청난 후과를 조성할 것이다. 이것은 연공이 아니고 속인의 집착과 추구로 조성된 것이다.

다른 한 가지 정황은 연공(煉功)할 때 기(氣)가 어느 곳에서 막혀 통하지 않는데, 기가 정수리에서 내려오지 못하면 그는 곧 두려워한다. 사람의 신체는 바로 소우주로서, 특히 도가 공법에서 관(關)을 돌파할 때 이런 번거로운 일과 마주칠 수 있는데, 돌파하지 못하면 기가 곧 이곳에서 맴돈다. 정수리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사람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곳은 바로 정수리다. 기가 정수리에 올라가서 아래로 내리쏘리고, 관(關)을 넘지 못할 때, 그는 곧 머리가 무겁고, 머리가 부풀거나 아주 두툽한 기의 모자를 쓴 듯한 등등의 이런 현상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기, 그것은 어떤 제약작용이 없고, 그것은 또 사람에게 무슨 번거로움이 나타나게 할 수 없으며, 전혀 무슨 병이 생기게 할 수도 없다. 일

공이라 여기는데, 이것이 어디 연공(煉功)하는 것인가? 이는 단지 가장 낮고 가장 낮은, 그런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상태일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도리어 아주 위험하다. 당신 자신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당신의 主意識(주이스)가 늘 당신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데, 그렇다면 당신의 신체는 아마 副意識(푸이스)나 외래정보·부체류의 것들에게 통제당해 일부 위험한 거동(舉動)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련계에 대한 파괴력도 극히 크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바르지 않아 조성된 것으로서, 집착하여 자신을 과시한 것이 지 이것은 주화입마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떻게 그 이른바 기공사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도 주화입마를 말한다. 사실 연공해서는 주화입마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은 주로 예술작품 중에서 들은 것이며 무슨 무협소설 등등 그중에서 이 한 용어를 들은 것이다. 믿어지지 않으면 당신이 고서(古書), 수련하는 책을 뒤져 보라. 이런 일이 없다. 어디에 무슨 주화입마가 있는가? 전혀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없다.

일반인이 인식하는 주화입마에는 몇 가지 형식이 있는데, 내가 방금 말한 것 역시 한 가지 형식이다. 자신의 마음이 바르지 않아 부체를 불러오게 되거나 무슨 기공태(氣功態)를 추구해 자신을 과시하는 등의 각종 심태다. 어떤 사람은 직접 공능을 추구하거나 또는 가짜 기공을 연마(練)한다. 연마하기만 하면 자신은 늘 자신의 主意識(주이스)를 늦추는 데 습관이 되어 아무것도 모르며 신체를 남에게 맡기는데, 정신이 흐

완전히 속인이었는데 아주 오랜 시간을 수련했다. 이는 개광 문제를 말하면서 든 몇 가지 예이다.

축유과(祝由科)

무엇이 축유과(祝由科)인가? 수련계에서 많은 사람이 공을 전하는 과정 중에 그것 역시 수련 범주의 것으로 여겨 전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수련 범주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일종의 비결·주문·기술을 이어받고 전하는 것과 같다. 그것이 채용한 형식은 무슨 부적을 그리고, 향을 피우며, 종이를 태우고, 주문을 외우는 등등으로서 그것도 병을 치료할 수 있는데,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아주 독특하다. 예를 들어 말해 보자. 누구의 얼굴에 부스럼이 났다면 그는 붓에 주사(朱砂)를 묻혀 땅 위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동그라미 안에 십자(十字)를 그려 놓고는 이 사람을 동그라미 중심에 서게 하고 그는 곧 주문을 외우기 시작한다. 그런 다음 붓에다 주사를 묻혀 그의 얼굴에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그리면서 주문을 외운다. 이리 굶고 저리 굶다가 부스럼에 점을 찍으며 주문도 다 외우고는 났다고 한다. 당신이 만져보면 작아졌고 아프지도 않은데, 그것이 작용을 일으킨 것이다. 이런 작은 병은 그가 고칠 수 있지만, 큰 병은 그가 고치지 못한다. 팔이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 입으로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며 그는 당신에게 팔을 내밀라고 하고, 이 한쪽 손의 합곡혈(合谷穴)에 대고 입으로 혹 붙여 그것이

다른 한쪽 손의 합곡혈로 나가게 하는데, 한 가닥 바람과 같은 감각이다. 다시 만져보면, 그것이 그렇게 아프지 않다. 또 종이를 태우고, 부적을 그리며, 부적을 붙이는 등등을 채용하는데 그는 이런 것을 한다.

도가의 세간소도(世間小道)에서는 명(命)을 닦는 것을 말하지 않고 완전히 점치기·풍수보기·굿하기·병 치료를 한다. 이런 세간소도에서는 그것을 많이 채용한다. 그것이 병을 치료할 수 있지만 그것이 채용한 방법은 그리 좋지 않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이용해 병을 치료했는지 중시하지 않으며, 무릇 우리 대법(大法)을 수련하는 사람은 그것을 채용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주 낮고 아주 좋지 못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고대에는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과목(科目)으로 나누었다. 예를 들면 점골·침구·안마·추나·점혈·기공치료·초약치료 등등 여러 종으로 나누었다. 매 한 가지 병 치료 방법을 한 과(科)로 불렀는데 이 축유과(祝由科)는 제13과에 속했으므로 그것의 총칭을 축유 13과라 한다. 축유과는 우리 수련 범주 내의 것에 속하지 않으며, 그것은 수련하여 얻어온 공이 아니라 술류(術類)의 일종이다.

제 6 강

주화입마(走火入魔)

수련계에 이런 설이 있는데, 주화입마(走火入魔)라 하며 군중(群衆) 속에서 영향 또한 매우 크다. 특히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아주 굉장하게 소문내어 일부 사람들이 감히 연공(煉功)하지 못하게 했다. 사람들은 연공하면 주화입마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는 겁이 나서 감히 연마(煉)하지 못한다.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주화입마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일부 부체(附體)를 불러왔다. 자신의 主意識(주이스)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면서도 이것을 공이라 여긴다. 신체를 부체에게 통제당해 정신이 흐리멍덩하여 마구 고탐을 치기도 한다. 사람들이 보니 연공(煉功)한다는 것이 뜻밖에 이런 식이라, 겁이 나서 감히 연마(煉)하지 못한다. 우리 많은 사람이 이것을